

감사의 글

1997년 9월부터 4년 남짓 수행했던 연구가 본 논문으로 결실 맺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글을 전할 수 있는 이 페이지가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생애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나를 돕고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홍콩에서의 유학시절 동안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홍콩동신교회 교우님들께, 특히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인도하신 김성준 목사님과 백성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족처럼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준 청년회 여러분들(변우성/박대운/손일옥/정도원/홍순남/...), 저희 가족을 위해 멀리 네덜란드까지 귀한 한국음식을 가지고 찾아주었던 김정래/탁운정씨, 그리고 함께 홍콩과기대학에서 생활하며 지냈던 동생들(안경진/한요섭)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덜란드에서 지낸 1년2개월 여 동안 많은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사랑의교회 교우님들, 처음 교회에 온 우리 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세령 목사님, 그리고 귀한 말씀과 함께 사랑으로 섬기신 문장환 목사님과 김성진 사모님, 저희가족을 섬겨 주시고 늘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이영한 장로님, 이옥현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뛰어난 음식솜씨를 발휘해 주신 혁상씨, 늘 멋쩍은 웃음의 찬종씨와 그 가족들(소영/재욱/민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진희네 가족(현준/소영/진희/선희), 늘 잔잔한 미소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중혁/부영씨, 그리고 모든 청년부 식구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Utrecht 에서 함께 유학하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창준이네와 경우씨네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서 항상 저를 생각해 주시고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께 누구보다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네덜란드에서 보낸 생활동안 이해와 사랑으로 남편을 섬겨주었고 지혜로움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온 아내와,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준,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넘치는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스런 아내를 낳아 길러주시고,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주시는 장인어른/장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하진 못했지만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